200713 coco_SHM free speech

교환학생

네 아까 교환학생을 갔던 장면을 떠올렸었는데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 2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빨리 자전거를 타고 간 게 처음이라 운동도 되고 도착하면 다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가서 만난 친구들이랑 밥먹고 운동하고 했었던 생각이 나고 친구들이랑 배드민턴 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가서 요리도 처음 해봤는데 처음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서 되게 뿌듯했고 파스타를 되게 많이 만들어 먹어서 실력이 조금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업들이 되게 재밌고 알차서 학교에서 한 학기나 1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더 가고싶은데 학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못갈 것 같아요 또 가게 된다면 호주? 미국? 아예 그런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할 수 없게 되었고,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가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행을 가서 먹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네요 육회 비슷하게 생긴 음식을 먹었는데 그쪽에서도 육회를 먹는다는 걸 처음 알아서 되게 신기했고

프랑스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되게 좋았어서 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